

두산에너지빌리티 영역 확장... 항공기 엔진 신사업 진출

1896년 창업한 우리나라 최장수 기업 두산그룹의 계열사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 플랜트와 담수플랜트 및 산업설비, 전기계장, 주단조설비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다. 2000년 말 성공적인 민영화를 토대로 세계 플랜트 시장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으며 2001년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지 21년 만인 2022년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두산 4세 박지원 회장이 이끌고 있다.

'남의 밥을 먹어봐야 안다'는 그룹 가풍에 따라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동양맥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두산상사와 두산을 거쳐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지빌리티)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중공업 기획조정실장·대표이사 사장·부회장과 두산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지냈다. 2001년 기획조정실장 부임 후 기업문화

부터 바꿨다. 먼저 사업부제 조직과 팀제를 도입하고 회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매년 초 이뤄지는 형식적인 시무식을 대체해 팀장과 중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사업영역 고도화에도 주력했다. 핵심 영역인 발전플랜트와 담수플랜트에 집중한 그는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설계, 제작과 그리고 시운전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EPC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해외 시장에서 대형 발전 EPC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박 회장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한번 정한 원칙은 절대 바꾸거나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딱 부러진 성격에도 직원과 허물없이 지내고 소탈한 대화를 이어나가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한편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용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제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항공엔진 사업 중 무인항공기 분야와 첨단엔진 분야에 힘을 계획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

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비행체의 추력(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는 고효율, 경량화, 작동 유연성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고효율, 안정성이 요구되고 항공용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제작 기술, 소재 기술 등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항공기 엔진 발사 시 엔진 내부에서 1500도의 초고열을 견디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미 1680도 고온환경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고온부품 등 핵심 소재 개발 역량, 자체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각종 지적 재산권(IP) 및 데이터베이스, 자체 설계·제작·시험 인프라, 고도화된 엔지니어 역량 등의 차별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박지원

현)두산그룹 부회장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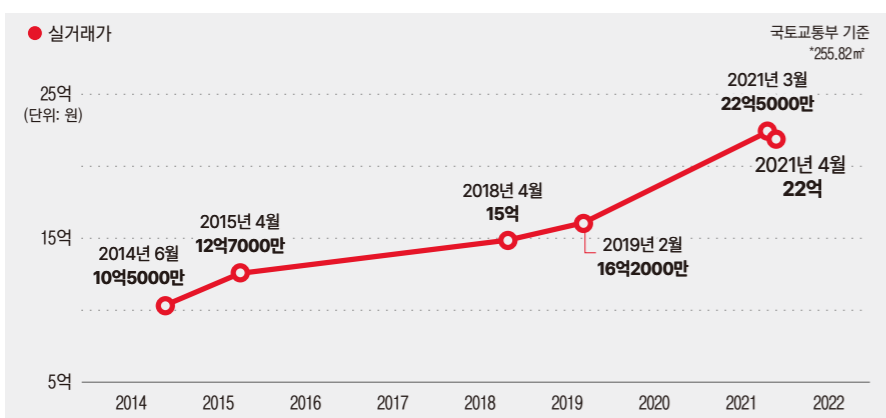


- 프로필**
- △ 두산상사 이사
 - △ 두산상무
 - △ 두산중공업 기획조정실 실장, 부사장
 - △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 △ 두산 사장
 - △ 두산 부회장
 - △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 △ 두산그룹 부회장
 - △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 △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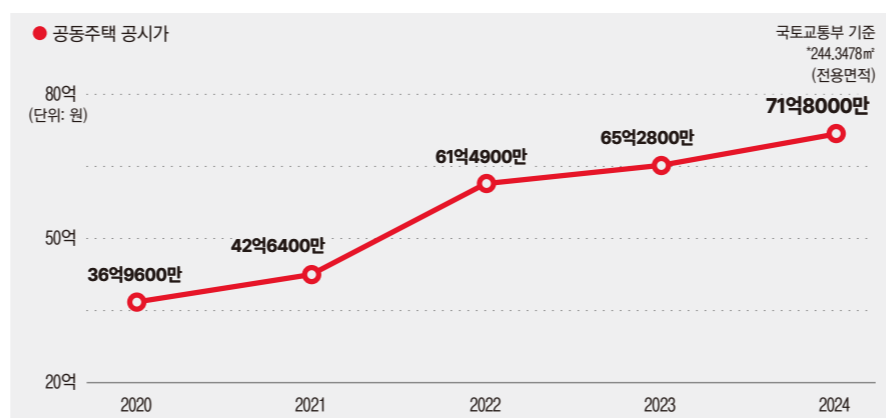
적고 고급주택인만큼 거래가 뜸한 이 호실은 최소 7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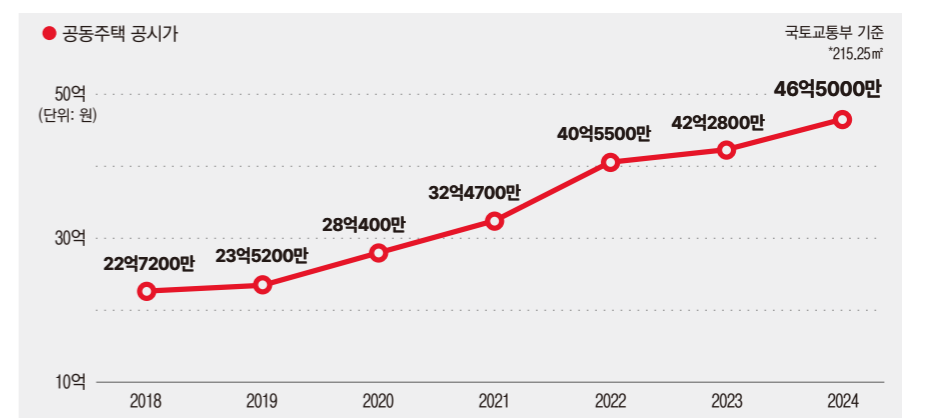
현대리버티하우스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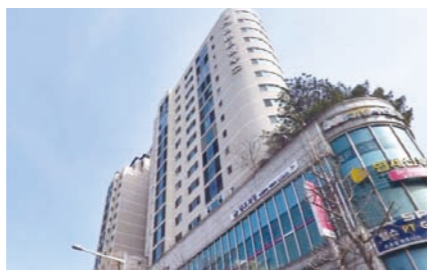


신박제 전 필립스반도체 대표이사 회장

신박제 전 필립스반도체 대표이사 회장은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필립스전자에 입사해 이사·사무·전무 등 요직을 거쳐 1993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그는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아시아경기단체총연합회 회장, 국제하키팀 집행위원 등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기업인 최초로 선수단장을 맡았으며 2005년부터 한



국외기업협회 회장을 맡아 외국 기업의 권익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매진했다. 국내에 '필립스' 브랜드를 정착시킨 신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립스 반도체사업에서 독립한 NXP반도체를 이끌기도 했다.



조정식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는 고려대 법학과에 합격했으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목표로 해 입학 후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했다. 다시 본 수능에서 서울대 법대가 100%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방식을 폐지하면서 고려대 법대에 다시 지원해 합격 후 2016년 졸업했다. 학업을 마치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학원에서 처음 국어 강의를 시작했으나 학원이 망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반지리가 영어 과목 뿐이라 강의를 맡았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비교적 짧은 강사 경력에도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 빠르게 입성해 그는 2016년 12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강의를 시

현메가스터디 강사



작해 1년 만에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1타 강사로 올라섰다. JTBC 예능 '다수의 수다'에 출연해 "아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 '둘 다 사' 정도"라고 답하며 높은 수업을 자랑했다.



유상철

유상철 HJ중공업 조선후분 대표이사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재무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재무·기획 전문가다. 대우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리딩투자증권 IB본부장, 동부건설 미래전략실장, WIK 대표이사, HJ중공업 부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8월 HJ중공업 채권단과 인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경영진에 합류해 사업부문의 수익성과 경영기획부문을 총괄하며 회사 발전을 이끌었다. 2년간 동부건설 경영 정상화를 이끈 경영 노하우로 기업의 경영관리 시스템 마련과 비용관리 개선, 프로세스 구축을 주도했고 조선후분의 상선 재개와 위성공장인 거제공장



매입, 노사관계 개선,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두루 성과를 올려 역량을 인정받았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승인되면서 연임이 성공했으며 1년 더 이글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